

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가정 소식

아이들이 짧은 겨울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맞이하였습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이 2박 3일 수련회도 가지고 바자회 등 바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어느덧 청소년이 되어 각자 모임을 가지고 역할을 맡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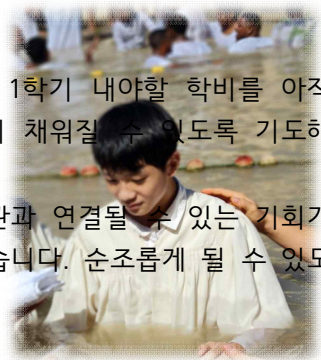
사역 소식

크리스마스 전후로 저희가 섬기는 난민촌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센터장과 만나고 난민촌 상황과 센터의 필요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에 저희 난민촌 센터의 문을 다시 여길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만날 분들과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 지역 가운데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섬기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1. 아이들 학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학기 내야할 학비를 아직도 내지 못했습니다. 300만원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센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돕는 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센터 프로젝트를 제출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정우 요단강에서 세례식장면)